

'지분맛집' GS, 4세 승계도 맛깔나게 잘할까

김현기의 GA

재계 순위 8위 GS는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분구조가 독특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오너가 48명이고 5개 법인이 그룹 지주사인 ㈜GS의 보통주 지분 52.27%를 조금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 지분을 이렇게 많은 특수관계자들이 소유한 것도 드물고, 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흔치 않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1세에서 2세, 혹은 2세에서 3세로 넘어갈 때 계열 분리를 통해 사업을 나누고 지분까지 정리한다. 하지만 GS는 그룹 시조로 꼽히는 독립운동가 허만정 선생(1세)의 8남은 물론 이들의 자녀 세대인 3세까지 큰 짐을 없이 원만하게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너가 지주사 지분율이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과반을 기록하면서 지배력도 한층 확고하게 다졌습니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오너가 4세가 30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10여명이 그룹 경영에 참여하다보니 GS그룹 입장에선 향후 지배구조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GS그룹은 3년 전 승계를 한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허준구 전 LG건설 명예회장(허만정 선생 3남)의 장남인 허정수(74) GS건설 회장(당시 GS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막내동생인 허태수(65) GS그룹 회장(당시 GS총수립 부회장)에게 그룹 대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허태수 회장

오너 48명·5개 법인이 지주사 GS 보통주 지분율 52.27% 기록 허태수 회장 3.5세 경영 분석 속에 4세 허준호·허세홍 등 두각 허정수 허준구계 지분 팽팽... 다른 가족들 캐스팅보드 관측도

이 경영하던 GS총수립은 2010년대 들어 해외 및 모바일 사업에서 탁월한 실적을 내 이 분야 국내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허 회장 경영 역량도 인정받아 그룹을 지휘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대개 40대 초중반인 경영 참여 4세들을 두고 그룹을 총괄하기엔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허태수 회장이 3~4세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허정수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고도 GS 건설 만큼은 여전히 지휘하는 점을 들어, GS건설이 GS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것 같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열 분리된 GS건설을 허정수 회장 외아들 허윤홍(43) GS건설 사장이 이어받게 될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달리 ㈜GS가 최대주주가 아니고, 허정수 회장 개인이 최대주주(자녀 및 관련재단 지분 포함)라면 11.27%입니다.

어쨌든 그룹 내부적으로 4세 승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자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GS그룹 주요 사업은 크게 에너지와 리테일, 건설로 나뉘는데 각 사업 곳곳에 4세들이 50대 전문경영인들과 호흡하며 역량을 점검받는 중입니다.



허태수 GS 회장.

그럼 안팎에선 승계 후보로 크게 4명을 꼽습니다. 우선 허만정→허정수(전 삼성물산 사장)→허남규(삼양식품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안 장남의 계보를 물려받아 4세 중 세력이 가장 위인 허준호(47) 삼양식품 사장이 있습니다. 허정수 전 사장의 차남인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 큰 아들로 4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허세홍(53)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후보도 물망에 오릅니다. 허정수 전 사장의 3남인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외아들 허세홍(45) ㈜GS 부사장은 3년 전 허태수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은 뒤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GS칼텍스에서 ㈜GS로 옮겨 주목받았습니다. 승계 마지막 후보는 허윤홍 GS건설 사장입니다. 크게 보면 허정수 전 사장의 손자가 3명, 허준구 전 회장의 손자가 한 명(허윤홍 사장)인 셈입니다.

그럼 내 지분 관해도 참고할 만합니다. 지난 6월22일 현재 법인 포함 오너가 53인 중 최대주주는 허만정 선생 5남 허준구 전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허동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으로 지분율 5.26%입니다. 이어 허정수 회장이 4.75%이고, 허준호 사장(2.85%), 허세홍 사장(2.37%), 허태수 회장(2.12%), 허서홍 부사장(2.10%) 등 2%대 주주가 9명입니다. 오너가 총 10% 이상 지분율을 기록한 이가 없어 특정 인사가 지배력을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집안 내 이익집단에 따라 오랜 기간 절묘하게 유지됐던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허정수(16.25%)와 허준구(16.19%)의 지분율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가족들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허준호 사장이 경영하는 삼양식품이 올 2분기 ㈜GS 지분율을 0.60%에서 0.35%로 낮춘 것, 허윤홍 사장이 ㈜GS가 아니라 GS건설 지분 위주라는 것도 변수입니다.

GS그룹은 2세 허승호(78) 알토그룹 회장부터 5세 허성준(14) 군까지 다양한 오너가 인물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등 '지분 맛집'으로 불릴 만합니다. 허태수 회장 취임 뒤 미래 사업 구축에도 힘쓰는 만큼, 이제 앞날을 위한 승계도 맛깔나게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propaganda@sporbiz.co.kr

현대차, 상반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연이어 유럽 진출

김동용의 수소경제 토크북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상반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주었다. 전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5469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16.7% 성장률을 보였다. 현대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는 스위스에 이어 독일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전국 수소 관련 기업 중 36.4%는 인천-경기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소경제를 인천-경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수소분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 외 주목해야 할 8월1주차 (7월31일-8월6일) 수소경제 주요 이슈를 돌아봤다.

◆전세계 수소차 시장 성장세 주춤... '두자릿수 성장률' 현대차는 1위 수성

올해 상반기(1-6월)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했으나, 현대자동차는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1위를 수성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시장조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소차 등록대수는 9769대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점유율도 4.1%포인트 오른 56.0%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요코하타는 판매수 2287대로 전년 대비 38.3% 줄었다. 점유율도 23.4%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2021년 2배 가량 성장했던 수소차 시장이 올해 각종 글로벌 이슈에 직면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며 선전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 요인에 대한 글로벌 수소차 업체들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스위스에 이어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 진출한다. 독일의 물류-제조 등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47대를 공급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이다.

이번 계약은 독일 연방디지털교부(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7개 회사가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BMDV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현대차가 공급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 중량 42톤급(연료탱크 포함) 대형 (킬로트럭)로, 2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킬로트럭)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2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수송용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분야는 해외 수출을 받기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수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매각, 또는 이전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업을 인수할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2개 기술은 △1.0A/cm² 이상 전류 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가능한 10kW급 수소(수송용) 건설·산업기계를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 기술 △산출 효율 35% 이상·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거 기술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수소차 보급·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등에서 세계1위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소차 등록 대수 9769대 중 현대차 판매 대수는 5469대로 56%를 차지했다.

김동용 기자 d0728@sporbiz.co.kr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한국전력과 함께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한전과 함께해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 방법 5가지

여름철 냉방은 26~8°C로!

냉방 온도 1°C 조절 시 연간 1kg의 CO₂ 감소

가전제품 대기전력은 차단하고!

셋톱박스 전원을 끄면 한시간에 약 70원씩 12.5W 절약

에너지 절약은 습관입니다!

햇빛 차단 시, 효율 상승 및 전기요금 절약

에너지, 선풍기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선풍기 사용 시 전기 사용량 2~30% 절감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고!

냉장실 내 용량 10% 감소 시 전기 소비 1.8kWh/월 감소



2020 주요국 전력소비 원단위 (만 100kWh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미래 세대를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동참해주세요!

